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2.02.20 (통권387호)



## 경제이슈

미국 경제 회복세 지속

1월 고용시장 개선

## 경영노트

반전 상품의 등장

## 사회 트렌드

솔로 이코노미

## 저널 브리프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6가지 방법

## 洗心錄

느긋하게 기다리기

□ 미국 경제 회복세 지속

- 1월중 미국 경제는 고용, 제조업 생산, 주택시장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며 회복세를 지속
  - 고용 : 신규 주당 신청건수가 34.8만 명으로 전월대비 1.3만 건 감소하며 2008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제조업 : 자동차와 부품(6.8%), 장비(1.8%) 등의 호조로 내구재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전월대비 0.7% 상승
  - 주택 착공 : 주택허가건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모두 증가하여 전월대비 0.7% 상승한 67.6만 호를 기록,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대비 1.5% 상승한 69.9만 호를 기록
  
- 미국 경제는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과 정부지출 감소 등 불안요인 존재

□ 1월 고용시장 개선

-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며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취업자 : 1월중 취업자는 2,37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6만 명 증가하여 2011년 10월 이후 3개월 만에 50만 명대 증가
  - 실업자 : 서비스업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실업자는 85.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만 명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는 심신장애(-4.8만 명), 재학·수강 등(-4.7만 명)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14.3만 명)과 연로(4.8만 명)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 증가
  
- 2월에는 최근 수출의 둔화세와 소비 심리의 부진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

□ 반전 상품의 등장<sup>1)</sup>

- 최근 고정관념을 뒤엎는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반전(反轉)’ 요소의 상품 접목을 통한 경쟁구도의 전환이 이슈로 부상
  - 그동안 반전의 요소는 주로 광고 및 홍보 분야에서 소비자의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상품 영역으로까지 확장
  - 특히 반전 요소가 상품의 주요 매력 포인트가 된다면 고정관념을 가진 기존 경쟁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무기로 작용
- 반전 요소에 기반을 둔 상품은 블루오션의 원천이 될 수는 있으나 상품 자체의 경쟁력과 신속한 시장 장악이 성공의 전제 조건
  - 반전이 상품 자체의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반전 요소가 소비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반전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얼리어답터 공략 등을 활용한 신속한 시장 장악이 중요하며, 미투(me-too)전략은 무의미
- 반전으로 소비자의 관심 유도에 성공한 상품들은 반전 요소가 단순히 이목 끌기의 수단을 넘어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반전요소를 사용한 제품 및 서비스 >

내 용	
<b>필립스 (Philip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전 요소: 식용류 등 기름으로 식품을 튀긴다는 통념을 깨고 기름 없이 튀김 요리를 만드는 ‘에어프라이어’를 개발</li> <li>• 음식 내 지방 함량분 감소, 기름 찌꺼기 처리 문제 해결 등으로 건강 및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부들의 관심이 집중</li> </ul>
<b>다이슨 (Dys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전 요소: 날개의 회전으로 바람이 나온다는 고정관념을 뒤엎고 날개 없는 선풍기를 출시</li> <li>• 날개에 의한 부상 우려가 없는 안전성과 우수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부상</li> </ul>
<b>집카 (Zip Ca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전 요소: 자동차는 소유하거나 렌트하는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회원들이 자동차를 공유하는 카 셰어링 서비스를 실시</li> <li>•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주차 및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상</li> </ul>

1) 본 자료는 동아비즈니스리뷰의 ‘반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2012.1)’를 요약 정리함

□ 솔로 이코노미<sup>2)</sup>

- 경제 주간이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호에서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특징을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 표현
  - 작년 미국 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28%로 역사상 가장 높았음
  - 이들은 구매력도 높은데, 2010년 미국 솔로의 연평균 지출은 3만 4000달러로, 2인 이상 가족(1인당 2만 8000달러)보다 많이 씀
  
- 이에 따라 기업들도 상품 개발, 판매, 마케팅 전략을 점차 1인 가구에 맞추고 있음
  - 웨보레가 광고에 여자 친구와 휴가를 보내는 여성 운전자들 등장시키고, 예물 반지 브랜드로 인식되던 ‘드비어스’가 미혼 여성을 위한 ‘오른손 반지’를 대대적으로 홍보
  
-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 2000년 220만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05년 317만, 2010년에는 410만으로 늘어, 10년 만에 배가 뛰었음
  -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셈
  
- 국내 기업들도 1인 가구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이마트는 당근, 양파 등 기존 음식 재료를 3분의 1 분량으로 줄여 990원에 내놓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조각씩 팔던 생선은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1~2조각으로 포장해 내놓고 있음
  - 990야채는 출시 2년 만에 전체 야채 코너 매출의 20%를 차지한 상태
  - 두부, 계란을 2~4조각씩 담은 상품도 매출이 50%씩 증가
  -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크기와 분량을 줄인 상품이 전체 가공식품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부터 3년간 레토르트 식품 매출도 56% 늘었으며, 특히 국내 즉석밥 시장 규모는 2008년 900억 원에서 2011년 1500억 원 규모로 성장

---

2) “철없는 찰리리맨 직장 물 흐린다”(매일경제신문, 2012.2.9)

□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6가지 방법<sup>3)</sup>

■ 업무효율 전문가들은 효율적 시간 관리 및 업무 생산성 강화를 위한 방법 6가지를 제시

- ① 15분 단위로 작업 나누기 : 업무 처리 계획을 세울 때 15분 단위로 업무를 구분할 것
  - 15분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므로 15분 단위의 업무구분은 시간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됨
- ② 업무 종료 시점 고려하기 : ‘나는 이 일이 언제 끝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일할 것
  - 이러한 마음가짐은 더 이상 의미 없는 활동에 계속 시간을 쓰는 행동을 방지할 수 있음
- ③ 방해물 제거하기 : 동료, 상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회의 시간 몇 분 전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것
  - 비생산적인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업무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④ 업무의 순서 정하기 : 계획, 토론, 아이디어, 개선 작업 등 큰 프로젝트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이를 세분화하여 순차적 행동 계획을 수립
  - 이러한 작업은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없애고 중요한 업무를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줌
- ⑤ 보너스 시간에 할 일 준비하기 : 외부 미팅, 강연, 출장, 세미나 등 어디를 가든 몇 가지 일거리를 항상 가져갈 것
  -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회의가 지연되는 등 예상치 못한 보너스 시간이 발생했을 때 이 공백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음
- ⑥ 단축키 사용하기 :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이메일을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상용구를 불러 단축키로 만들 것
  - 단축키를 사용하면 사람들의 일반적·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 빠르게 답변할 수 있어 엄청난 시간이 절약됨

---

3) ‘시간 관리 : 생산성 향상 6가지 팁’(한국IDG, 2012.01.25) 참조

## □ 느긋하게 기다리기

루쉰은 《한 권으로 읽는 루쉰 문학 선집》이라는 저서에서 “튼튼한 나무가 있기를 바라고 고운 꽃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좋은 흙이 있어야지요. 흙이 없으면 꽃도 나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흙을 갈고 닦아야만 나무와 꽃이 겨우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흙을 현실 문제에서 인재육성, 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쉬운 듯이 보이는 망치질도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무수한 반복의 과정을 오랜 기간 동안 거쳐야 자연스럽게 망치가 못의 머리를 찾아가게 된다. 파울로 코엘료의 「알레프」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어느 중국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거의 오 년 동안은  
아주 작은 순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성장은 땅 밑에서 이루어진다.  
복잡한 구조의 뿌리가  
땅 밑에서 종으로 횡으로 뻗어나가면서 형성된다.  
그러다 다섯 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약 25미터 높이로 성장한다.』

물도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고요하다가 1도 높은 100도, 즉 비등점에 이르면 갑자기 끓게 된다. 어떤 일은 단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만, 또 다른 일들은 갑자기 25미터를 자라는 대나무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뿌리와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후에 갑자기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順境의 미덕은 절제요, 逆境의 미덕은 인내다.

- 베이컨(1561-1626) : 영국 철학자